

“당심·민심 잡아라” 경선 후보들 막판 세몰이 ‘후끈’

민주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오늘 돌입

후, 동부청사 확대·통합특별시장 구상 발표
閱, 문화수도 비전 제시·지지선언 잇따라
金, 여수 경제정책 공약…각계 지지 붓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본 경선 시작 전날인 2일까지 정책 발표와 지지 선언 등을 총동원한 막판 세몰이에 집중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종합 비전을 발표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민 후보는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 ▲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가 산업, 일자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에는 지역 대학 산·학 협력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남·광주 R&D 통합 기획단’을 추진하겠다고 구상도 제시했다.

민 후보를 향한 지지 선언도 잇따랐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객재용 감독, ‘암수살인’의 김태균 감독, 배우 정찬용·이승현 등 국내외 영화인 60명과 전남·광주 전·현직 지방의원 19명, 시민사회 1천58명은 이날 민 후보 경선 사무소를 찾아 민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신정훈 후보는 민생 현장과 지역 조직을 잇따라 찾아 통합특별시장의 비전·실행 구상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광주교통문화연

수원에서 열린 개인택시조합 보수교육 현장을 찾아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서 택시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약사회 회장단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 강화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공공 야간·심야약국 등 지역 맞춤형 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 간담회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의 목표를 ‘시민주권정부’로 제시하며 재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 후보는 이날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 편의 개선과 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한 ‘동부청사 대폭 확대 및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동부권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다.

김영록 후보도 광주시의회와 여수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발표하고 각계 각종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자신이 광주·전남 통합을 제안한 첫 기획자이자 통합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오후에는 여수시의회를 찾아 석유화학 감산 대책 추진 및 민생 추경 확보로 여수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동부권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김 후보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지 선언도 붓물처럼 쏟아졌다.

(사)광주영화인협회 차두옥 회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인 30여명과 광주시 퇴직 공무원 155명, 전·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76명은 이날 김 후보 경선 사무소를 찾아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김영록”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 밖에도 전남지체장애인협회원, 광주전남수의사협회원, 광주가정어린이집 5개구 지회장단 등 사회·직능단체 회원들과 재광 고향 출신 인사 등이 김 후보 경선 사무소를 찾아 지지의사를 밝혔다. /변은진·양시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2일 오후 여수시의회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산업위기와 관광전환 동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김영록 “합종연횡이 정답은 아니다” 비판

“정략적 단일화와 지지 선언은 달라”

후·閱 견제…유권자 신중 선택 당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2일 최근 후보 간 단일화 흐름에 대해 “합종연횡이 정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보고 선택을 했을 텐데 그 후보가 합종연횡이 돼서 바뀌었을 때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유권자

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후보끼리 합종연횡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사·도민들께서 후보 간 합종연횡 여부를 떠나 누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후보인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인지 잘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의 지지 선언을 받은 점과 관련해서는 “이병훈 부위원장은 여러 후보를 만나보고 많은 검토를 거친 끝에 통합특별 시장이 돼서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김영록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후보 간 세력이 부족해서 합치는 것과 (지지 선언은) 다른 양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쟁 후보인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달 30일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도 지난 1일 민 후보로의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3-5일)은 신정훈·민형배·김영록 후보(본경선 기호 순) 간 3강 체제로 치러진다. /변은진 기자

市, 각화도매시장 이전 부지 주민설명회

광주시가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인 북구 효령·용진·용강동 주민들을 만나 지역 사회와 도매시장의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소통에 나섰다.

광주시는 2일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이전 부지 인근 주민과 유통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약 3천149억원을 투입해 부지 32만㎡ 규모에 채소동, 과일동, 종합물류동, 상가동 등을 갖춘

미래형 스마트 도매시장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될 경우 2033년 착공, 2036년 이전 완료 목표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대형 물류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체증과 소음, 악취 발생 가능성 등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에 광주시는 물류 동선을 체계화해 혼잡을 방지하고 도매시장과 마을 사이에 완충 녹지인 공원을 조성하는 등 환경적 여건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변은진기자

내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도 제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자체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료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으며 투·리·반장의 회

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당·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해당 지자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와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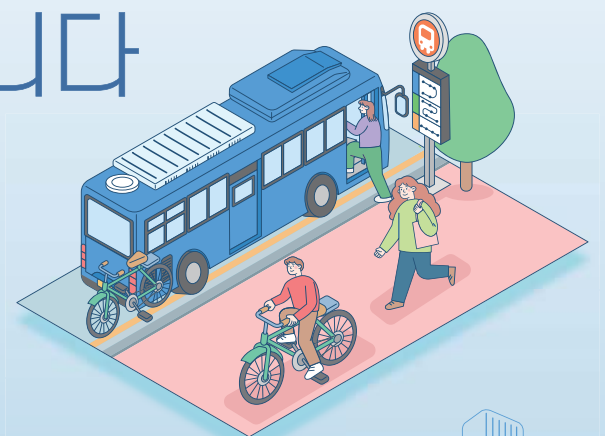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재정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